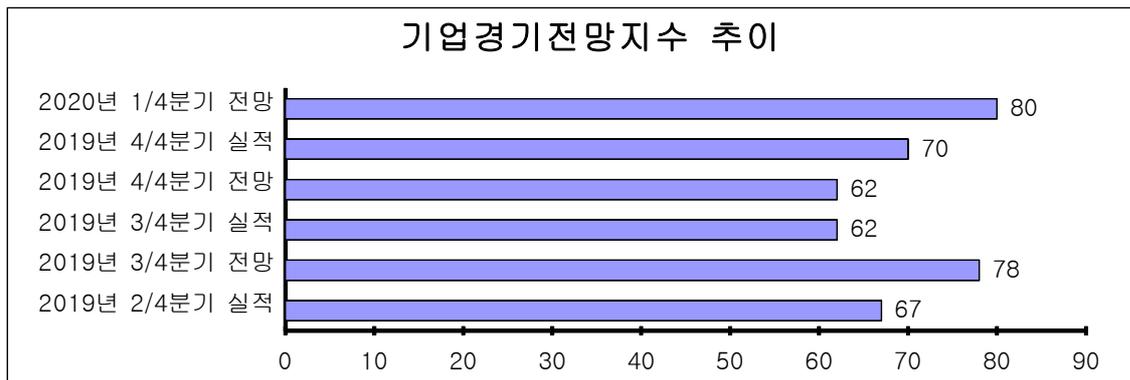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0년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 분기보다 '18' 포인트 상승한 '80' 을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19년 2/4분기 실적	2019년 3/4분기 전망	2019년 3/4분기 실적	2019년 4/4분기 전망	2019년 4/4분기 실적	2020년 1/4분기 전망
체감경기	75	76	58	69	64	84
매출액	71	91	62	60	79	78
영업이익	59	67	58	59	58	78
자금조달 여건			50	67	76	78
설비투자					72	83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84, 매출액은 78, 영업이익 78, 자금조달 여건 78, 설비투자 83 대체적으로 2020년

1/4분기 전망은 2019년 4/4분기 전망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2020년의 경제 흐름이 2019년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서 ‘올해와 비슷’ (68.0%), ‘호전’ (20.0%), ‘악화’ (12.0%)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들의 2020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 리스크를 묻는 사항에서는 ‘내수침체 장기화’ (44.7%), 최저임금·주 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 (36.8%), ‘투자심리 위축’ (7.9%), ‘총선 등 정치이슈’ (5.3%), ‘신산업·혁신을 가로막는 정부규제’ (2.6%), ‘기타’ (2.6%) 순으로 응답했으며 대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美·中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37.5%)로 가장 높았으며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韓·日 갈등’ (25.0%), ‘환율·금리 변동성 심화’ (21.9%), ‘中 경제 성장세 둔화’ (12.5%), ‘기타’ (3.1%)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사업계획의 방향을 묻는 항목에는 ‘보수적’ (80.0%), ‘공격적’ (20.0%)로 ‘보수적’에 응답한 업체가 대부분이며 ‘보수적’에 응답한 업체들의 세부 이유로는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 (70.0%), ‘국내시장 포화로 투자처 부재’ (15.0%), ‘서비스·신산업 등 신규투자 기회 봉쇄’ (5.0%), ‘원자재값 변동성 확대’ (5.0%), ‘기타’ (5.0%) 순으로 응답했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신규채용 인원 계획을 묻는 항목에는 ‘2019년과 비슷’ (80.0%), ‘2019년보다 늘릴 것’ (12.0%), ‘2019년보다 줄일 것’ (8.0%)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신규채용 인원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뒤야할 경제정책으로는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55.0%), ‘파격적 규제개혁’ (25.0%), 수출·투자 모멘텀 회복(20.0%) 순으로 응답했으며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뒤야할 경제정책으로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 2019. 12. 4 ~ 12. 18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